

도로명 주소에 아파트 이름 빠져 입주민 울상

유명 브랜드 프리미엄 사라질라 이미지 퇴색·집값 하락 우려도

2016년 3000가구가 입주 예정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는 '서구 화정로 236'이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 브랜드는 제외되고, 숫자만 남았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건설에 공을 들인 광주시가 수차례 제의 끝에 현대건설을 유지했지만 공식 주소엔 아파트 브랜드가 쏙 빠지고 만

것. "푸르지오, '자이', 'S-클래스', '베르디움' 등 도로명 주소에서 아파트 이름이 빠지자,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봉선동이나 치평동 등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미지 퇴색이나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소가 통용되면 시절엔 같은 지역의 동일 입지에서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평가가 달라졌던 것

이 사실. 오래된 아파트가 브랜드 이름을 달고 새 페인트칠만 해도, 집값이 소폭 상승해 거주자들은 대형건설사 브랜드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실제 메이저 브랜드는 중소 브랜드와 비교해 분양가는 물론 시세도 높게 형성돼 있었다. 이 때문에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아파트 계약자들은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뒤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고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률 100%를 달성한 서구 마북동 SK뷰 계약자들은 아파트 브랜드가 주소에 없다는 말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공사 현장의 번지 정리 때문에 아직 새 주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브랜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계약자는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계약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주소에 아파트 이름이 없으면 외부에서 찾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사실상 사라지지 않겠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브랜드 지명도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거머쥔 건설사들도 도로명 주소 탓에 브랜드 가치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큰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주소에 아파트 이름이 사라지는 만큼, 입주민들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 봉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명문학교로 유명한 봉선동은 같은 지역에 단지를 이룬 대형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큰 편이었다"며 "외부에서 찾기 어려워지면 아파트값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K 브랜드 데이' 이벤트

영화 관람 기회 제공

기아자동차가 10일부터 24일 까지 오는 3월31일 열리는 첫 번째 'K 브랜드 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아차 K9

'K 브랜드 데이'는 'K'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K 시리즈'가 상징하는 날짜인 ▲K3(3월3일) ▲K5(5월5일) ▲K7(7월7일) ▲K9(9월9일)에 차례로 어울리는 이벤트를 여는 것.

3월3일에 열리는 이번 이벤트 참가자는 광주를 포함, 전국 6개 자동차 전용극장(서울 명동 메가박스BOE4, 경기도 파주 자유로자동차극장, 대전 엑스포극장, 광주 패밀리극장, 대구 씨네스카이, 부산 부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기아차 보유고객이 라면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지역별로 100명씩 총 600명의 당첨자가 선정된다. 한편, 기아차는 K3, K5, K7을 할부로 구매하는 2월 개인 출고 고객에게 1.9%(24개월 할부), 2.9%(36개월 할부), 3.9%(48개월 할부)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K 시리즈 1-2-3 초저금리 할부'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융정보 유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거래 종료 5년내 정보 삭제 의무화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과도한 고객 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1억여건의 카드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올라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형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연필뉴스



밸런타인 데이 선물 '커플 향수' 인기

밸런타인 데이를 앞둔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향수를 선보이고 있다. 커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향수는 최근 밸런타인 데이 선물로 인기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테마상점가 조성사업 방향 타진

대인시장상인회, 세미나

대인시장상인회와 광주대인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인시장 내 미테갤러리에서 광주테마상점가 조성기초사업의 방향을 타진해보는 '대인시장 광주테마상점가 조성기초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대 임창욱 교수의 '대인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종로4

가 지하상가 청년가게' 사례와 '강화품물시장 청년창업' 사례가 각각 발표된다. 하상용 재능기부센터 대표와 박항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주북부센터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광주테마상점가조성기초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인시장 내 '광주'를 테마화한 대표상점을 창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형마트·편의점 카드결제 비중 줄어

고객정보 유출 영향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보유출 카드 3사 고객의 카드 해지가 잇따르면서 해당 카드들 중심으로 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결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마트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직후 3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이 80%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유

출사태 이전 3주간 카드결제 비중 82%보다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KB국민·롯데·NH농협 등 고객정보 유출된 3개 회사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카드 매출 가운데 이들 3사 카드 비중은 25.1%에서 2.1%포인트 줄어 23.0%가 됐다. 1천원 단위까지 소액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편의점에서도 고객들의 카드결제 빈도가 큰 폭으로 줄었다. /연필뉴스

편의점 CU가 고객 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매장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전 한달(12월8일~1월7일)의 92.4% 수준으로 감소했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의 결제 건수가 직전 한 달간의 88.3% 수준으로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고,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결제 건수는 이전 한 달 결제 실적의 90.3%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필뉴스

▲ 코스피지수 1923.30 (+0.80)	▲ 코스닥지수 518.47 (+4.02)	▼ 금리 (국고채 3년) 2.85% (-0.01)	▼ 원·달러 환율 1071.20원(-3.10)
----------------------------	---------------------------	--------------------------------	------------------------------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 간 40dB이하
 야 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유 데코타입(적사각형) 데코타입(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광역시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男	초혼	女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사선동) (063) 275-7766